

들어가기 본문은 유명한 스테반의 죽음의 현장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기자는 왜 스테반의 죽음을 이토록 세밀히 기록하였을까요? 스테반의 죽음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스테반의 죽음 속에서 성도가 사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둘러보기 성도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은혜와 순종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스테반이란 이름은 ‘면류관’이란 뜻으로 성경은 그를 일관되게 칭찬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이 기록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히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인간을 높이거나 숭배하며 모델 삼지 않습니다. 스테반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6:8) 이는 스테반이 사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 바꾸면 깊은 평안이 물밀 듯 밀려들어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가 대신할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Q. 여러분이 사는 힘은 무엇입니까? 혹시 은행의 잔고, 사회적 지위, 안정된 노후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속의 가치에 묶여 있는 모습이 있다면 단호하게 돌아서는 결단을 해 봅시다.

스테반은 회당에서 사람들과 논쟁하였습니다.(6:9) 이 회당은 “자유민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자유민은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간 후, 폼페이 장군 때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유를 얻은 후에도 언어와 문화의 문제로 본토로 돌아가지 못하여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불립니다. 이들이 명절만 되면 고향땅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자기들끼리 살던 근거지에 회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들이 전부 합세하여 스테반과 논쟁하였습니다. 스테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6:10)

Q. 스테반이 회당에서 논쟁하였을 때, 어떠한 힘으로 승리하였습니까? (6:8~10)

세상은 논쟁에서 졌음에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증인들을 사서 스테반을 두 가지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첫째, 예수께서 혈라고 하셨다고 고발합니다.(6:14)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만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2:19) 이것은 성전된 자기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실 것이고, 곧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였다고 고발합니다.(6:14)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인이 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몸 된 성전을 헐어버리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Q. 거짓 증인들이 스테반을 향해서 고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6:14) 하지만 그 내용의 옳은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해봅시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 속에서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표현은 맥락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6:15) 이 현장은 위기가 감도는 현장인데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표현은 흐름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는 느낌은 공회 중에 앓은 사람들이 받은 느낌입니다. 스테반의 반대편에서 죽이려고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는 대상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테반이 긴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어디에 몰두해 있는가 얼굴로 나타난 것입니다.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은 은혜의 내공이 쌓인 결과물입니다.

Q. 스테반이 공회에서 논쟁할 때 그의 표정이 어떠했습니까?(6:15)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표정이 나왔는지 생각해보고 발표해봅시다.

나오기 결론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테반의 순교의 현장을 보고 계심에도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첫째, 삼위 하나님은 스테반의 죽음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행 7:55) 스테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결재 없이 이루질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둘째, 스테반이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역할은 순교자의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삶의 기초와 원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꽃가마 타는 역할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자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겼다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고통을 뛰어넘게 합니다. 여기에 성도가 사는 법이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하면서, 또는 여러 사역을 하면서 기쁘게 하지 못할 때가 없는지 서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서로 발표합니다.

▶ 수도권선교를 마지막으로 모든 여름 선교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여름 선교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간증해봅시다. 그리고 이 현장의 영광과 기쁨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지 생각해보고 결단해봅시다.

기도 : ♪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도록
담임목사님의 강단사역과 말씀의 사역을 위해
선교적 제자로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위해
삼일결혼예배학교와 청년들의 만남의 은혜를 위해
모든 주일학교와 각 공동체 모임을 위해